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다 예수사랑 큰잔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각각 외치던 목소리를 모아 이제 한 목소리가 되어 세번째 예수사랑에의 초청을 선포하려 합니다

.....

지금 여기, 놀랍고도 경이로운 초청의 파파르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초청이 있습니다. 어떤 초청은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기분 좋은 초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초청은 부담과 괴로움이 되는 초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나가서 전해야 할 이 놀라운 초청은 바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이미 이천 년 전부터 울리고 있는 이 파파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억압당한 줄도 모르는 억압되어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불게불게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상처입은 자에게 위로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그리하여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 되,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한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감 같은 새힘을 얻으라고.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먼저 초청받아 새생명을 얻고 놀라운 자유와 평안과 새힘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복되고 놀라운 초청을 선포할 사명을 받은 사랑의 매신자들입니다. 우리가 각각 외치던 목소리를 모아 한 목소리가 되어 범교회적으로 그

귀한 초청을 선포한지 한 번, 두 번, 이제 그 세번째 초청을 선포하려 합니다.

우리 첫번째와 두번째보다 더 성숙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귀한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외쳐봅시다. 온 서울 장안에, 그리고 이 민족 방방곡곡과 세계 구석구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초청의 소식을 선포합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94 예수사랑 큰잔치에 망설이지 말고 와보라, 와보라.....

당회장 신성종 목사

예수사랑 큰잔치 설명회, 4부 예배후 본당에서

7월 10일까지 태신자카드 작성완료 기간중 '잃은 양 찾기운동'을 겸해서

금년의 예수사랑 큰잔치는 태신자 작성에 의한 전도운동과 잃은 양 찾기운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준비위원회는 오는 7월 10일까지 태신자 명단을 작성하며 파악관리기로 했고 잃은 양 찾기운동도 재적자 중에서 교회불출석자, 장기결석자, 낙심자, 93예수사랑 큰잔치 참석자 중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파악하여 관리기로 했다. 그리고 태신자가 결정되면 그리스도의 편지를 적극적으로 보내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며 태신자가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과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예배참석 출석확인

- 매주일 각 교구는 구역식구들의 예배출석 유무를 점검하여 구역장이 교역자에게 보고한다.
- 교역자는 결석자에게 전화로 권면하

5 준비위원회 조직

위원장/김재명 장로 지도/임성환 목사 서기/박정규 목사

분과명	분과장	지도	분과업무
기획	노광현		기본계획 수립, 전산망 구축, 시설문, 종합평가
진행	김재명	임성환	세부계획수립 추진 및 당일 진행총괄/통계, 기록, 보고서작성
예배	김방진	최인근	예배, 금요집회, 강사교섭, 특순자교섭
찬양	김은호	현상민	찬양 및 특별순서
교양	최대원	홍창민	유인물원고, 요원교육, 태신자 사후관리, 포상
1교육	정하우	이조용	1교회학교 예수사랑 큰잔치 기획 및 진행 총괄
2교육	손동운	김찬곤	2교회학교 예수사랑 큰잔치 기획 및 진행 총괄
동원	강은원	최인근	전교인 총동원(당일 예배, 새벽기도회, 금요집회 교육 등)
봉사	마성락	장경철	안내, 접대, 차량관리, 의료, 식사, 음주수, 미화, 유인물 배포
홍보	조선근	김광국	행사 전반 주지 및 홍보, 기록물제작 및 보존

그리스도의 편지 - 효과적인 활용법

예수사랑 큰잔치, 그 세번째의 나팔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금년에 세번째 실시하는 예수사랑 큰잔치는 더 효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첫번째와 두번째의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미 수립되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작년 제 2회 때 실시했던 그리스도의 편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는 한편, 그리스도의 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1.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을 태신자 명단 작성(7월 10일까지) : 이번 초청은 타교인을 당일만 참석케 하는 등 숫자 채우기식의 초청을 지양하고, 양육을 전제한 초청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 평소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이나 접촉점 편지를 통해 접근하여 결정된 사람들의 명단을 기도하며 확정한다.

2. 매일 기도 시간마다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 : 성령님의 감동없이 단순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그들의 마음문을 열기가 어렵다.

3. 그리스도의 편지의 관리 및 배포 : 그리스도의 편지는 예수사랑 큰잔치 준비위원회의 봉사분과에서 관리 및 배포하게 된다. 봉사분과에서는 본당 로비에 세트 포장된 12종의 씨앗편지(불신자용)와 날개로 된 12종의 그리스도의 편지를 항상 준비해서 원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4. 7월 10일, 첫번째 그리스도의 편지 발송 : 기도하며 작성한 태신자에게 7월 10일 주일, 첫번째 그리스도의 편지를 일제히 발송한다. 성도들은 자신의 태신자들에게 보낼 그리스도의 편지를 작성하여(주소, 성명, 간단한 안부와 권면 등을 기록) 우표를 부착, 주일날까지 교

구별로 제출한다. 교구에서는 교구내 모든 그리스도의 편지를 수집하여 찬양예배시 당회장 목사님의 기도 후에 다음 월요일 봉사분과에서 발송한다.

5. 7월 10일 이후에 작성된 태신자에게 : 7월 10일 이후에 작성된 태신자에게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12신의 편지 중 적당한 것을 골라 보내며, 초청편지(13신과 14신)는 함께 보낼 수 있게 조절한다. 이때는 필히 발송카드를 작성하여 중복이나 빠짐이 없도록 체크한다.

6. 7월 10일 일제히 발송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9월 25일에 제 12신을 보내게 된다.

12신을 모두 받은 수신자에게 10월 2일 제 13신에 해당하는 초청편지를 발송한다. 10월 9일 초청을 확인하며 제 14신에 해당하는 초청편지를 다시 한번 발송하고, 10월 16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초청을 권면한다.

7. 그리스도의 편지의 종류: 불신자용 씨앗편지 종류

· 유치부용(6신) · 유년부용(6신) · 초등부용(6신) · 중등부용(7신) · 고등부용(7신) · 대학부용(10신) · 청년부용(12신) · 장년부용(12신) · 주부용(12신) · 소망부용(12신)

그 외에 장기결석자용으로 유치부와 유년부용으로 각 4신씩 새순편지가 제작되어 있으며, 장년부를 위해서는 낙심자용(12신)과 환우용(6신)이 제작되어 있다.

❖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처음도 기도하고 마지막도 기도합니다. 편지를 쓰기 전에 기도하고, 쓰면서 기도하고, 보내면서 기도하고, 보낸 후에 기도하자. 주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문제에 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김영삼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합대에 올라가서 사열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보다도 훨씬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이 시간에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사건에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바로 여기에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힌 사건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심문 끝에 형이 확정된 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예언대로 로마병정들의 손에 넘겨지면서 형의 집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1. 멸시와 조롱을 당하심

첫째로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옷벗감을 당했습니다. 옷은 주위와 더위로부터, 또

피부를 상처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신분 때문에 옷이 결정되기 때문에 옷은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옷벗감을 당하는 최대의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둘째로 흉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얹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주며 조롱했습니다. 원래 왕은 홀을 들어야 하는 것인데 갈대가 쥐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경배를 흉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배가 아니라 조롱이며 예수님을 희롱한 것입니다.

셋째로 30절에 보면 저들은 예수님께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돌아가며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침을 뱉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침은 입속에 있을 때는 좋은 것이지만 입밖으로 나왔을 때는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비인간화의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독 중에 모독인 참람음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극한 갈증을 겪으셨습니다. 병자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실패했거나 무능해서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값싼 동정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여러 가지로 목말라 하는 우리 인생들의 치유의 약이 되고 갈증해결의 비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생한 의식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씌어진 죄책가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라틴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생각, 또한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조그만 유대나라만의 왕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상의 조그만 일국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며,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일부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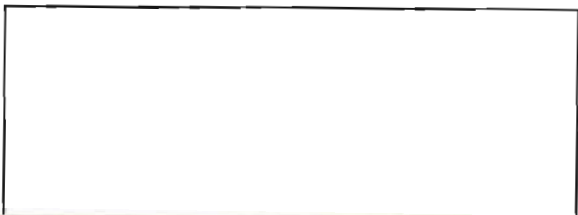
여섯째로 39, 40에 보면 “자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며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두 강도 중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함을 받았습니 다. 바울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다른 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마도 처음에는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른쪽에 있던 한 강도는 예수님의 자애, 그 경이로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회개를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4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말했노라며 회개하고 모욕했습니다.

일곱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에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성경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때

는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름이 끼었다는 것 이상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죄악과 어두움이 관영해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2. 십자가에 못박히심

첫째로 예수님께서 풀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심

(마 27:27-44)

“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직책을 붙였더라

”

신 성 중

<복사·당회장>

다. 풀고다라는 말은 해골처럼 생긴 곳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날 풀고다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구원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곳이 어디든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곳이 바로 풀고다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시 69:22, 22:18, 사 53:12, 시 22:7, 8 등등).

둘째로 요즘은 십자가의 의미가 변해서 십자가 목걸이나 귀고리를 하고 다니기도 하지만 십자가란 본래 수제와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형의 형틀인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나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은 바로 나무(선악과)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로 만든 갈고리에서 태어나셨고 나무를 다루는 목수의 직업을 가졌고, 마침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에게 저주의 동지가 된 바로 그 나무 위에 달리심으로 인류의 저주를 다 제거시켜 주셨습니다. 죄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했지만 반대로 주님은 죄를 죽이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사랑의 계시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요일 3:16).

셋째로 십자가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인류의 모든 죄악에 따른 저주를 대신 감당해주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다음으로 겸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그의 겸손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화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더해주고, 나와 나를 더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사는 것도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해의 십자가를 우리는 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의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는 질 수 없지만 이러한 십자가를 저야 합니다.

3. 구레네시몬이 받은 축복

첫째로 십자가를 대신 진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재수없게 잘못 걸린 십자가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는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고 영원토록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에게 있어 십자가를 대신 진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내 몸의 태인 십자가는 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는 축복을 받았습니 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고난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할 때 함께 외로움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봉사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최후 순간에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죽음의 시종을 목도한 구레네 시몬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입니까?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4. 본문이 주는 교훈

첫째로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의 죄악을 대신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목마름으로 인해 우리의 갈증은 영원히 해결되었고, 주님이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의 고통은 해결되었으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참고 견딜 수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이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큰 십자가, 어떤 사람에게든 작은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맺는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십자가가 본인에게는 너무나 무거워보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도하여 주님께 힘을 얻어서 공급해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태인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승리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성경중심의 여름성경학교가 되기를

이 조 응

(목사, 제1교육위원회, 1교구 지도)

벌써 여름성경학교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작년 여름성경학교가 끝나며 부서마다 평가회를 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올해의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다 보면 작년에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기발하고 재미있는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에 골몰하며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무더운 여름에 왜 여름성경학교를 해야 하는가 여름성경학교를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된 유래를 간단히 살펴봄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여름성경학교관을 재조명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름성경학교는 1898년 7월에 뉴욕시의 조그마한 에피파니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날 이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인 해리스 부인(Mrs. Walkdr A. Hawes)은 여름방학마다 거리에서 낫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노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해리스 부인은 궁리 끝에 밤에만 사용하는 한 음식집을 낮동안만 열었습니다. 그리고 방학동안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을 모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배, 노래, 성경, 이야기, 그림, 성경암송 등 말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매일성경학교(Everyday Bible School)라고 짓고 7년여동안 계속하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발이 되어 여름성경학교는 전교회적으로 실시되는 운동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살펴볼 때 여름성경학교는 여름방학 중에 방학하기 쉬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성경의 내용보다는 프로그램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흥미를 돋우며 재미나게 할 것인가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름성경학교는 신체를 단련하는 수련장에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미있게 놀고 즐기는 야외 캠프도 아닙니다. 더욱이 부서별로 모여 까보게 못한 곳을 찾아 가는 3박 4일의 수학여행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교회가 아닌 학교에서나, 보에 스카우트나 켈 스카우트에서 그리고 개타 기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여름성경학교는 어떤어야 되겠습니까?

1. 해마다 반복되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작년에 여름성경학교를 한 학생에게 작년 여름에 한 성경학교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물으면 기억하고 대답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주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성경학교의 주제는 있는데 실제 내용은 주제와 동떨어진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끝난 다음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연례행사가 되고 마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뚜렷한 주제 속에서 일관되게 진행되는 것이라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위해 여름성경학교를 했는지를 뚜렷히 기억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으니 올해도 또 하는 것이지 하고 새로운 도전과 설레이미 없이 '하니까 해야지'라는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겨져야 하듯이 올해의 여름성경학교는 올해에 맞게 계획되고 수정되고 발전된 내용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2. 재미있었다는 것보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여름성경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경제수준이 점점 좋아지고 놀이시설이 발달되어 요즘의 아이들은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재미없어 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딱딱하다고 생각되는 예배, 설교, 성경공부시간을 줄이게 되고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이 팽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재미를 위해서 여름성경학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놀러 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벼룩 어리다 할지라도(벼룩 장난이라도) 일생일대의 신선한 충격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 훗날에도 올해의 여름성경학교를 잊지 못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가득찬 여름성경학교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중심의 성경학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인, 신앙의 결단, 죄에 대한 회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낱아빠진 구식이라고 몰아부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신식보다는 구식이 좋습니다. 우리 육체가 먹어야 좋아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특별잔치를 맞이하는 안 됩니다.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알게 되겠지만 상상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적습니다. 학생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게 되면 그들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타성적인 아닌 자발적인 신앙인으로 살게 됩니다.

3. 믿음의 실천교육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학교를 하다보면 프로그램 진행에 매달리다 보니 학생들의 제재한 행동을 살펴보고 교정해줄 여유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올바른 여름성경학교가 되려면 지나치게 쉬운 학생들의 행동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약2:28)이란 야고보의 말씀대로 믿음에 어떤 개념이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곧 생활이며 행동이며 실천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언어생활, 식사예절, 옷을 올바르게 입는 법, 대인관계, 자연사랑 등입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보면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사라지는 때입니다. 부모에게 존대말을 쓰는 청소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아이들과 같이 타

고 내릴 때에도 어른이 내리고 타기전에 아이들이 먼저 내립니다. 인사도 없습니다. 친구간에도 함부로 말을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어원도 없는 말을 합니다.

식사때에도 형식적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는 노래만 부르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각처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생명이 많이 있음을 기억시키고, 진정한 감사와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기타 여러 가지 행동지침을 만들어 교사들이 가르치고 교정해야 할 것입니다.

4.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를 물색하고 정하는 데에도 이를 고려하여 선정함이 좋습니다. 대개들 우리 충현교회당이나 충현기도원은 지점다(충현교회학교 부서에서)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이상 더 좋은 장소는 별로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름성경학교를 은혜가운데 마쳤나 하더라도 역사사건이나 그외의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온통 그 문제 때문에 여름성경학교의 모든 것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일로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5. 교사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사실 성공적인 여름성경학교가 되려면 교사들의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교사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마치못해 수련회에 참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무장되고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교사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의 대부분은 개인 여름휴가를 여름성경학교에 맞추어 얻어서 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이러한 귀하고 헌신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감사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친구따라 처음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하는 학생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불신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인도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려다니며 노는 태에 열중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름성경학교의 계획을 마친 부서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항들을 다시 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글자 그대로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알려주는 의미있는 천국잔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여름성경학교 세진이 왔다. 사진은 성경학교를 앞두고 지난주인 우리 교회당에서 모였던 수도권교회연합회교인연합회의 교사강습회 모습.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 94년도 1학기 성경연구원 수료식 수도노회 남전도회 헌신예배도

94년도 제1학기 성경연구원 수료식이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 있게 된다. 지난 3월 초순에 개강하여 6월 초순까지 충현교육훈련원 산하 성경연구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수료하게 되는데 오늘 수료자는 미리 나와서 본당 1층 앞편 좌석에 앉아 주기를 바라고 있다.

수료자는 제40기 교사양성부가 104명, 임시기사 단기교육수료자 66명, 제10기 찬양대양성부 수료자가 31명, 94-1 주간성경공부 고린도전서의 13개반 이수자 290명 등 총 491명이 수료하게 된다.

한편 오늘 저녁 찬양예배에는 수도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헌신예배로 드리지게 된다. 설교는 고영민 목사(성도교회 당회장)가 하게 된다.

취학전 어린이 관련부서

탁아부로 행정 일원화

지난 6월 정기당회에서는 취학전 어린이 교육부서의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탁아부가 이를 관장토록 했다.

이는 현재 새가정부, 청년2부에서 부모를 따라 오는 어린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이에 따른 행정문제가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 다음의 사항들이 일원화 된다.

· 인사 : 각부의 교사(어린이 교육, 봉사)는 탁아부교사로 임명하며 각부(해당)에 파견 봉사하도록 한다.

· 재정 : 탁아부장이 일괄 업무를 관장하면서 파견된 교사의 업무 영역을 지원하도록 한다.

· 교육 : 해당부서장(파견)과 지도교역자와 협의하여 교육에 유익된 교안으로 지도하게 한다.

1+1 운동?
1(총출석)+1(전도)=새생명(구원)

저희 초등5부는 총출석전도운동을
6월 26일 주일 실시합니다.
찾습니다!
5학년 학생은 초등5부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찾았네, 잃은 양!
새 친구!
새 생명!

6·25체험담을 모집합니다.

6·25를 겪은지 만 44년을 맞이 하면서 6·25에 대한 체험담을 모집합니다. 원고지 10매 정도로 자유롭게 적으셔서 <주간충현 편집실>로 보내주십시오. (전화 552-8200, 교348, 349)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 김창인 목사 : 19일(주일) 부천시문교회 일일부흥회 설교,
21일(화) 세계교회 부흥선교회 주최 교회부흥과 목회자의 윤리 특강,
22일(수) 충신 목회신학원 재교육과정 예배 설교
· 신성중 목사 : 20일(월) 부산기독교방송 주최 부산지역 전교역자 세미나 특강,
21일(화) 합동신학교 동문회 수련회 특강,
23일(목) 충신 목회신학원 특강,
24일(금) 민자당 기독교회 조찬기도회 설교,
6.25상기 기독교장로회 총영성수련회 설교(오산리 기도원),
25일(토) 6.25 기도의 날 행사 설교통역(여의도광장)
2. 무더운 여름에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건강과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3. 잃은양 찾기와 태신자 갖기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복음이 확산되며 교회가 부흥되며 나라에 안정을 주시옵소서.
4.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사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민생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5.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인 프랑크푸르트 장로교회와 비스바덴 한인교회의 부흥과 독일국립분자들의 행동으로 선교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6월 19일(오늘) III부 헌금송 독창자 바리톤 세릴 밀른스

오늘 III부 예배 헌금시간에 세계적인 바리톤 세릴 밀른스씨가 헌금송을 하게 된다. 세릴 밀른스씨는 1960년 미국 골드프스키 오페라를 통해 데뷔한 후 세계적인 바리톤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모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다. 그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담은 60여개의 음반 중에는 찬송가를 부른 곡은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감동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오는 6월 22일 예술의 전당에서 독창회를 갖기 위해 18일 내한한 그는 주일 예배를 위해 충현교회를 찾게 됐다.

물맷돌

<주간충현> 편집실로 날아온 이야기 하나

'예수사랑' 차량 스티커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하게 된 충현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이 되었다. 서울 시내를 자주 다니는 사람은 하루에 보통 2-3대의 '예수사랑'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들을 보며 반가운 마음을 가져본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반갑고 한 식구임을 확인하게 되는 '예수사랑' 스티커가 어떤 때는 참으로 곤란스러운 때가 종종있다. 편집실에 보내온 이야기도 그런 것이다.

타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보내온 내용은 이렇다.

어느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의 운전자들이 한창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차 뒤에는 밝은 색의 '예수사랑 충현교회'라고 쓴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싸움은 그치지 않고 차량들은 정체되어 이 사람이 보다 못해 차에서 내려 싸우는 사람을 멀리는데 '예수사랑' 스티커 주인이 목소리가 꽤나 컸고 다소 거칠기까지 했다. 그래서 충현교회 나가시는 모양인데 좀 참으시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며 무안을 주기에 그 자리를 패했다고 하는 내용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

물론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는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겠으나 '예수사랑'을 붙이고 다닌다면 또한 뺨가는 조금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해도, 양심은 우리의 것이지 타인의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3)

'예수사랑' 스티커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는 나는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교통법규를 준수합니다. 나는 큰 소리로 싸우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이럴 따름에 없는 사람은 '예수사랑'을 떼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장경다미



열무김치 나누기

장 경 철(목사, 제16교구)

설익지 않은, 중간 정도를 약간 지난, 조금은 신듯한
바로 그 오탁한 발효의 신비....
그리고 열기 바로 전의 그 시원함.
그래 바로 이뵈어야!
요즘은 그저 입에 맞는 시원하고 깔끔한 열무 물김치가 최고다.
그러나 자기의 입에 맞는 물김치란 숨겨진 복한 핵무기의 실험보다 찾기 어렵고,
그 맛을 맛들어 내기란 핵사찰협상 만큼이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그 오탁하고 신비로운 색과 맛과 온도의 배합은
전적으로 장구한 세월과 숙달된 손끝에 달려있다.
따라서 열무 물김치는 젊은이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얼굴에 주름이 지고, 손끝이 무뎌진 그리고 인생을 알고 기왕이면
민음까지 소유한 그런 어른들의 것이다.
바로 그 열무 물김치가 오늘 프라이드에 실려 배달되어 온 것이다.
구질하지 않은 깔끔함과 모시옷 같은 사원시원함의 이미지까지 함께 나는
이 생애한 감동!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맛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 느껴졌으면....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삶과 믿음의 맛일 수 있다면....
불쾌지수 높고, 끈적거리며, 지루하며, 딱딱한 우리 사이에
정말 열무 물김치 같은 그런 사랑이 필요한 덕롭이다.